

[보도자료] 쿠팡이츠, 전통시장·영세매장 대상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 1년 연장 그 외 매장 4월부터 중개이용료 적용

2026. 2. 26.

- 쿠팡이츠는 2021년부터 배달업계 유일하게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 시행 지속
- 전통시장 및 상생요금제 매출 하위 20%이하 영세매장 대상 지원 1년 연장
- 그 외 매장은 3월까지 지원, 4월부터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6.8% 적용돼 업계 수준 운영
- 전통시장, 영세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업주 대상 상생노력 지속해 나갈 것

2026. 02. 26. 서울 - 쿠팡이츠가 전통시장 및 상생요금제 매출규모 하위 20%이하 영세매장 대상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을 1년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. 이외 매장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지원하고 4월부터 정상화해 중개이용료 6.8%를 적용한다.

쿠팡이츠는 주요 배달앱 중 유일하게 2021년 10월부터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을 시작해 지속 지원해왔다. 지난해에도 정부 및 입점단체와 협의된 자율규제, 사회적대화기구의 상생 방안으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을 1년 더 연장했으며 충실히 이행해 왔다. 올해 4월부터는 전통시장과 상생요금제 매출규모 하위 20%이하 영세매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.

전국 전통시장 매장의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, 대상 등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.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매장은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.

쿠팡이츠의 상생요금제 매출규모 하위 20%이하 영세매장은 상생요금제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월단위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를 100% 환급 받는다. 신규 업주가 월 중간에 입점했다더라도 영업일로부터 당월 매출액 규모가 적용되어 상생요금제 매출규모 하위 20%이하 구간에 해당 시 영업 당월부터 바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쿠팡이츠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. 최근 경남 진주중앙시장 등 전국의 전통시장에 친환경 포장용기 30만 개를 지원했으며 청량리종합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.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점 준비 교육, 메뉴와 상품의 전문가 사진촬영 지원 등 온라인 판매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.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.

쿠팡이츠 관계자는 “주요 배달앱 중 유일하게 지속해왔던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을 전통시장 등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지원하고, 그 외 매장에 대하여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운영하고자 한다”며 “전통시장 활성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도의 상생지원을 통해 입점 매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